

3순위 / 양돈장 질병 근절

- 돼지 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대책 -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결의와 각오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정기 및 수시로 농장소독을 실시하여 전염원 제거, 밀사방지·보온·환기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전파경로에 대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혼연일체가 되는 방역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 축산업에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리라 믿는다.

국내의 가축전염병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 이전에는 열악한 사육환경과 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정국 중심의 교역으로 질병 유입기회가 적어 돼지오제스키병·유행성설사병 등 토착형 일반 질병들이 발생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과의 교역이 증가하여 구제역 등 경제적 피해가 큰 악성질병의 유입기회가 증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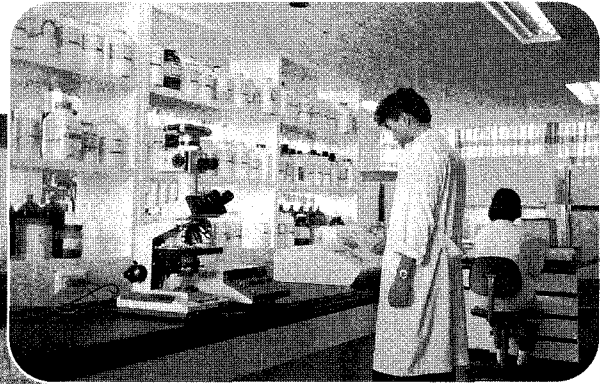
지난 2000년 이후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업 등에 피해가 막대해 지고 있고, 유럽 이외에 미국·일본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되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마련('04년 8월)하게 되었다.

금번 종합대책은 건강한 가축사육의 환경조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차단, 해외 악성가축질병의 국



김 태 용 수의사무관
농림부 가축방역과





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지자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 가축방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방역인력 확충 및 “공익수의관계” 도입, 돼지콜레라·돼지 오제스키병 및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PMWS) 등의 만성소모성질병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돼지콜레라

그 중에서 돼지 질병의 방역 관련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돼지콜레라의 경우는 '99년부터 100% 예방접종 및 미접종 농장 과태료 부과 등 집중방역관리를 통해 당초 목표대로 '01년 청정화에 성공하였으나, 1년도 못되어 동북아 발생지역에서 병원체 유입으로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때 우리로서는 국경검역 여건개선, 가축 밀집사육 해소, 축산분뇨 처리향상, 가축방역 관련 차량·시설관리 등 유통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농가의 자율방역 제고 없이는 청

정화 유지가 어려움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의 발생최소화 및 청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방접종명령 위반농가 (면역형성을 80%미만)는 과태료 처분과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체가 높은 모돈(감염 위심축)은 조기도태 유도로 감염원을 차단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청정화를 단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밀집지역 농가분산,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구제역

구제역은 '02년 6월 마지막 발생후 추가발생이 없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02년 11월에 청정국을 회복하였지만, 몽골·중국 등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재발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재발위험이 높은 3~5월간을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하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경검역으로는 몽골·중국 등 운항노선에 탐지견을 집중배치하고 휴대품 검색을 강화, 발판소독조 운영, 전광판·기내방송을 활용한 축산물 휴대반입을 금지토록 하는 검역홍보 등을 통한 병원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국내방역은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통한 소독실시 등 농장단위 방역활동 강화, 구제역 조기발견·신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농장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예찰 강화,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여행 축산농가 방역교육 등 특별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3.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아울러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의 경우는 돼지썩코바이러스(PCV2)가 주요 원인체로 추정되며,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PRRSV)와 돼지 파보바이러스(PPV) 및 파투렐라균 등과 혼합 감염되어 주로 발병함에 따라, PMWS 방역 방안으로 농장단위의 차단방역과 우수종돈장 돼지입식, 밀사방지·보온·환기 등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예방약을 개발·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PMWS 예방을 위하여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이 중요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돼지간의 접촉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농장 전체로 전파되므로 올인 아웃 시스템 등을 통한 돼지간 접촉을 제한하고,

둘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 질병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사육돼지에 대한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셋째, 돈사와 사용기구 등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좋은 영양관리는 성장뿐만 아니라 자돈의 면역발달에도 중요하여 자돈에 대한 영양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대책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단체 등이 성실히 수행하여 나갈 때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악성질병 뿐만아니라 돼지오제스키병, PMWS 등의 돼지 소모성질병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축산농가 스스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키다”는 결의와 각오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정기 및 수시로 농장소독을 실시하여 전염원 제거, 밀사방지·보온·환기 등 사육환경 개선과 함께 전과경로에 대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혼연일체가 되는 방역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 축산업에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리라 믿는다. **양돈**

